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ozambique LNG poised to book newbuildings in mammoth deal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8척씩 LNG선 건조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Total사가 추진하는 Mozambique 30억달러 규모의 LNG선 건조계약이 수 주 내로 체결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현재 4개의 선주가 LNG선 16척에 대한 장기용선계약관련 shortlist로 선정되었다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은 Maran Gas Maritime 및 NYK Line로부터, 현대중공업은 MOL 및 K Line로부터 수주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미포조선, 5만톤급 PC선 2척 900억원에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유럽소재의 선사로부터 50,000DWT급 PC선(석유화학제품운반선) 2+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금액은 약 900억원이며 10월부터 건조를 시작하여 내년 하반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옵션분 1척도 계약에 포함돼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Daewoo lands LNG vessels deal for Russian Arctic projects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공시한 7.48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LNG-Barge 2척은 러시아 Novatek이 추진하는 Arctic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쇄빙형 LNG선으로부터 일반 LNG운반선으로 액화천연가스 화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유럽 간 LNG 거래를 도울 예정으로 알려짐. (Upstream)

한국조선 vs 대우조선, 차기 구축함 누가 폼나

방위사업청의 7조원 규모 대어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건조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이 시작되었다고 보도됨. KDDX는 해군이 약 7조원을 투입해 먼 바다에서까지 작전 가능한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알려짐. 해군은 2023년 하반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짐. (아시아타임즈)

독주하던, 자국 발주 줄자 한·중 수주 점유율 격차↓

5월도 선박 발주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자국 조선사에 물량을 주던 중국 선주의 발주가 급감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수주 물량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됨. Clarksons에 따르면, 5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57만CGT이라고 보도됨. 지난달 중국에서의 발주가 줄어든 데 따라 중국 점유율이 4월 71%에서 5월 47%로 급락한 데 반해 한국 점유율은 같은 기간 16%에서 40%로 높아졌다고 보도됨. (이데일리)

Great Eastern 스크러버 공사 "Go!"

인도 선사 Great Eastern Shipping은 스크러버가 생각만큼 좋지 않지만 앞으로 보유 선박의 스크러버 개조공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힘. 회사는 현재 고유황유·저유황유 간 가격차가 줄어든 데 따른 실망감을 컸으나 스크러버 자체에 실망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수에즈맥스 탱커 4척의 개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선박뉴스)